16일 일본 도쿄 시부야 NHK 스튜디오에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운데 서 있는 이)의 사회로 진행된 '마이클 샌델의 백열교실' 녹화 현장. 한국(오른쪽) 중국(왼쪽), 일본(가운데) 3국의 대학생들이 샌델 교수가 던진 질문에 대해 색깔 손팻말로 즉석 투표를 하고 있다. 도쿄=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韓 "위안부 문제는 현재진행형" vs 日 "조상들 잘못 책임지라니 난감"

젊은 역사토론… 백열등만큼 뜨거웠다

韓中日 대학생, 日 NHK '샌델 교수 백열 교실' 녹화 현장

"난징대학살도 부인하고, 중국 침략도 '서구 열강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려면 불가피했다'는 궤변을 펴는 사람이 아직도 일본에는 있지 않나요?"(중국 대학생)

"과거 잘못은 물론 사과해야죠.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어야 하나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일본 대학생)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일본 정치인들을 보면 지난날 일본이 한 사과조차 진정성을 의심하게 돼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흘러간 과거사가 아닌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의 문제입니다."(한국 대학생)

16일 일본 도쿄(東京) 시부야에 위치한 NHK 스튜디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한중일 3국 대학생들의 치열한 논쟁으로 스튜디오 공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2011년부터 대학생과 진행하는 NHK의 TV토론 프로그램 '마이클 샌델의 백열(白熱)교실' 현장이다. 토론을 통해 백열등처럼 문제를 환히 밝히자는 취지로 붙인 제목이다.

이날 녹화에는 일본 도쿄대와 게이오(慶應)대, 중국 푸단(復旦)대, 한국 아산서원 소속 대학생이 8명씩 나서 영어로 토론을 벌였다. 원래 과거사 문제는 다루지 않을 계획이었다. 토론이 과열될 것을 우려한 NHK가 3국 학생의 꿈이나 고민 같은 '말랑한' 소재를 다루려 했던 것. 하지만 샌델 교수가 "실존하는 갈등을 없는 척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진다"고 주장해 민감한 과거사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이날 녹화 현장에는 영국 BBC 라디오 제작진도 찾아와 토론 내용을 녹음하며 관심을 보였다.

녹화 초반에는 일본의 전쟁 책임 회피와 과거사 왜곡을 비판하는 한중 양국 학생들의 파상공세에 일본 학생들은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한 일본인 참가자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지른 조상들의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인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할 정도였다.

샌델 교수는 토론이 겉돌 기미를 보이자 "과거 세대의 잘못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여부와 책임의 범위에 대해 얘기해 보자"며 현안을 윤리적, 철학적 문제와 연결시켰다.

국수주의적 역사 기술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한국 대표가 "일본을 비판하는 우리 교과서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현지 여성에게 저지른 인권침해는 외면한다"고 하자, 중국 참가자도 "중국 교과서 역시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 시기 정부의 과오나 부작용에 침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거들었다.

방송사측 과열 우려 "과거사는 빼자"
샌델 "민감 현안 다뤄야" 분위기 띄워
초반 韓中 공세에 日학생 방어 급급
"솔직한 의견교환… 상호이해 폭 넓혀"

4시간 가까운 녹화를 마친 뒤 샌델 교수는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상호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도쿄대 박사과정의 야마베 에리코(山部惠理子·30) 씨는 "처음에는 방어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편히 의견을 나눴다"며 "일본에 대한 한국과 중국 친구의 솔직한 생각을 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국 푸단대생 리허우포(李厚朴·25) 씨도 "3국 학생들이 차이도 많지만 공통점도 많다는 걸 느꼈다"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 평화롭게 풀지 못할 갈등도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국 측 참가자인 최윤혜 씨(23·성균관대)는 "샌델 교수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토론이 정례화되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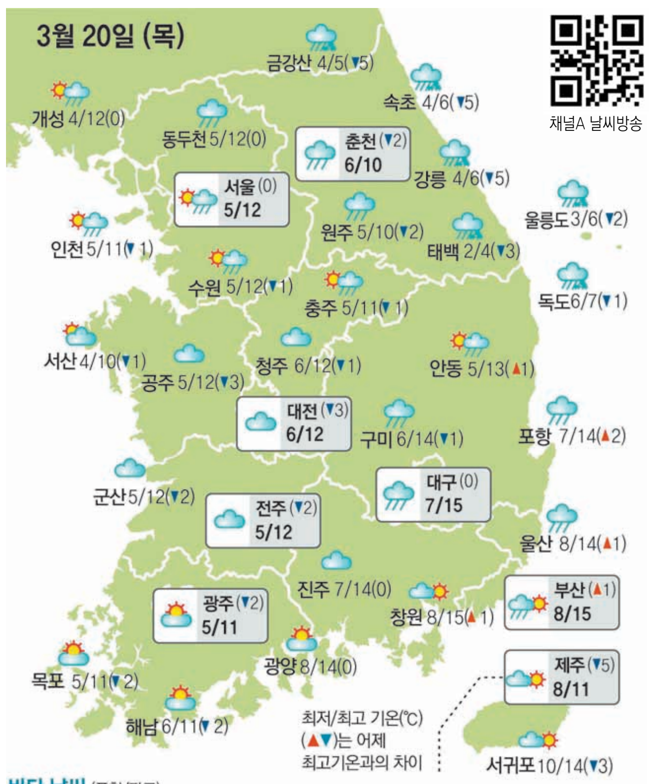
이날 녹화분은 5월 중순경 NHK 교육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최근 고위층 인사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도마에 오른 NHK가 이날 토론 내용을 어떻게 편집해 보도할지도 주목된다.

도쿄=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오늘의 날씨

해뜸 06:36 해짐 18:43 달뜸 22:22 달짐 08:22

전국에 산발적인 약한 비



바다 날씨 (풍향/파고)

	서해중부	서해남부	남해서부	남해동부	동해중부	동해남부	제주
오전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북서-북 1~2.5	북-북동 0.5~1.5	북서-북 1~2.5
오후	북서-북 2~3	북서-북 1.5~3	북서-북 1.5~2.5	북서-북 1~2.5	북-북동 2~4	북서-북 2~4	북서-북 2~4

범례

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차차흐림
흐리고 비	소나기
비후 갬	비 또는 눈
눈	차차 흐려져 비
차차 흐려져 비/눈	

WEATHERi 웨더아이(주) 제공 www.weatheri.co.kr

날씨문의 국번없이 131

생활 기상정보

나들이	빨래	불쾌	운동
30	20	40	30
가급적 삼가세요	잘 마르지 않아요	활동하기에 좋아요	실내 운동하세요

오늘 강수확률 (%)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서울	20	60	대전	30	20
인천	20	60	전주	30	20
수원	20	60	광주	10	0
춘천	60	70	대구	60	60
원주	60	80	포항	60	60
강릉	80	80	울산	60	60
충주	30	60	부산	60	20
청주	30	20	제주	40	10

내일·모레 날씨 (최저/최고 기온)

	21일(금)	22일(토)		21일(금)	22일(토)
서울	1/12	2/14	대전	2/12	1/15
인천	2/11	3/13	전주	1/12	0/14
수원	1/13	2/15	광주	2/11	0/14
춘천	-1/12	0/14	대구	3/14	2/15
원주	0/12	0/14	포항	3/13	3/14
강릉	1/9	4/14	울산	3/13	2/16
충주	0/12	1/16	부산	4/14	3/16
청주	2/12	2/16	제주	6/10	4/13

만조/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인천	06:56 19:09	00:57 13:19	부산	10:24 22:46	04:11 16:15
평택	06:42 18:55	00:51 13:12	울산	09:52 21:52	03:24 15:30
군산	05:12 17:23	11:56 -	포항	08:09 17:53	01:00 13:08
목포	04:24 16:32	09:32 21:45	속초	05:15 17:06	11:14 23:56
여수	11:14 23:38	05:03 17:09	제주	00:34 12:35	07:07 19:14

醫-政 이번엔 '건정심 위원 배분' 충돌

〈건보정책심의委〉

'공익위원 8명 가입-공급자 同數' 논란
수가결정 유리한 인적구성 노려
의협 "4명 의료계, 4명 가입자로"
복지부 "정부측 위원 당연히 포함"

건강보험 수가를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가입자 대표(시민단체 등) 8명 △공급자 대표(의료계) 8명 △공익위원(정부 관계자 4명, 장관 위촉 전문가 4명)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17일 복지부와 의협이 발표한 의·정 협의문에서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는 문구를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이 문구가 공익위원 8명 중 4명은 가입자 단체가, 나머지 4명은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그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항상 가입자 편에 섰기 때문에 현행 건정심 구조는 불공평한 '8(공급자 대표) 대 16(가입자·공익대표)'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정부 관계자 4명을 건정심 위원에서 배제하고 공익위원 8명 중 절반을 의료계가 추천할 수 있게 되면 수가 협상 구도는 '12(가입자) 대 12(공급자)'로 평등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비교

	현재	의협 주장안
가입자 대표 위원 (시민, 근로자 단체 등)	8명	8명
공급자 대표 위원 (의협 등 의료계)	8명	8명
공익 대표 위원	4명(정부 관계자)	4명(가입자)
	4명(전문가)	4명(공급자)
합계	24명	24명

정부안은 미정(앞으로 협의하면서 인원 결정, 단 가입자 공익대표와 공급자 공익 대표 수는 동일, 정부 관계자도 공익대표에 포함).

노환규 의협 회장은 19일 "건정심 구조개선 조항은 그동안 정부가 독점하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1 대 1로 동수 추천하기로 동의한 것"이라며 "건정심 구조 개선은 정부가 이미 문서로 인정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부인하면 정부는 협상에서 신의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두고 "의협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건정심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원은 확정된 바 없고 공익위원에 정부 측 인사는 기본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건정심 인적 구성은 연내 추진하기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건정심 위원 수는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 정책관은 "협상 중재자로서 정부 측 인사가 건정심에 들어가는 건 의협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0일 정오까지 이번 협상안을 바탕으로 2차 휴진 철회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